

# 원로문화예술인 소식지

오늘도 나빌레라 '무용가 한순옥'

## 국립무용단의 스타 한순옥 선생님

한순옥 무용가는 1932년 평양에서 태어나셨으며, 고등학생 시절에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, 춤으로 유명한 최승희 선생님의 공연을 본 후 춤에 빠지게 되어 무용가로 꿈을 바꾸셨다고 합니다. 이후 부모님 몰래 최승희 무용학원의 오디션을 보고 합격하여 최승희 선생님의 제자가 되셨다고 합니다.

## 피카소와 로맹 롤랑 등 당대 문화예술계 유명인들 앞에서 공연하며 찬사를 받았던 최승희 선생님의 유일한 제자

한순옥 무용가의 스승이셨던 최승희 선생님은 한국 무용을 새롭게 창조하셨던 분으로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춤으로 잘 표현해내셨기에 당시 미국, 뉴욕 등 해외에서도 공연을 많이 하셨으며, 파리, 이탈리아, 독일 등지에서 열렬한 찬사를 보낼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분이셨다고 합니다.

## 무용학원에 마지막까지 남았던 열정가

한순옥 무용가는 집에 가지 않고 무용학원에 남아 선배들이 검무 추는 것을 몰래 지켜보며 혼자 순서도 외우고 남몰래 연습도 하였으며, 선배들과 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. 무용학원에 입학한지 1년 만이었지만, 모두가 감탄하였다고 합니다. 한순옥 무용가는 이렇게 실력이 좋았기에 국비생으로 돈을 받으며 무용학원에 다니셨었다고 합니다.

\*검무: 궁중을 중심으로 발전·계승되었던 궁중무용 중 하나의 장르로 칼을 도구로 사용하여 추는 춤



이미지 출처: 경향신문 - 춤과 그들

## 6·25 전쟁 발발로 북한에서 남한으로

한순옥 무용가는 남한의 한국무용단의 무대에서 <검무>를 선보였고, 그곳에서 근현대 무용의 아버지라 불리는 송범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.

무용학원에 다니던 시절에 한국무용, 발레, 인도무용, 현대무용, 모던발레, 소설댄스 등 다양한 과목을 배웠었기에 어떤 무용이든 완벽하게 소화해냈던 한순옥 무용가는 송범 선생님의 제안으로 이후 한국무용단에서 함께 활동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.

## 최승희 선생님의 춤 정신을 후학에게도 전해주고자 하셨던 예술가

30살이 되시던 해에는 '무용연구소'를 열어 무용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고3 입시생들을 지도해주셨으며,



이미지 출처: 국립무용단 홈페이지

국립무용단의 창단에 함께하시며 우리나라의 무용 발전에 많은 힘을 보태주셨었다고 합니다.

**예술나무씨앗을 키워보세요.**

예술나무를 키워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나라 문화예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.

문화예술에 후원하는 당신도 예술가입니다.